

녹색기후기금(GCF) 최종 후보 프로젝트 리스트 - 총 5억 달러 규모

GCF, 12월까지 개도국에 자금을 제공할 "장래성 있는" 프로젝트

2015.6.30, Megan Darby/ 녹색기후기금(GCF)가 총 60억 달러에 달하는 120개 자금지원 제안서 받아 이를 검토하고 있다.

헬라 쉐흐로흐 사무총장은 이 "장래성 있어 보이는" 프로젝트들의 총 규모는 5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GCF는 12월 파리 COP 이전에 GCF 자금지원을 받을 첫 번째 프로젝트들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29일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헬라 사무총장은 선진국이 공여수준을 더 높일 것을 주문했다.

"좋은 시작이지만, 지금까지 마련한 것 훨씬 이상으로 기후재원을 풀어야 한다"

작년 GCF 재원조성은 34개 나라로부터 총 102억 달러의 성과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2020년까지 선진국이 약속한 연간 총 1,000억 달러에는 한참 모자른 액수이다.

GCF는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로부터 개도국을 보호하는 조치에 똑같이 50:50으로 자원을 분배하기로 했다.

이는 풍력 에너지와 같이 탄소 저감 벤처 사업에 집중된 기존의 기후금융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2014년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취약국을 보호하는 데에 쓰인 액수는 총 280억 달러 중 18%에 불과하다고 했다.

헬라 사무총장은 필리핀을 강타했던 태풍 하이얀으로 인한 폐허, 모국인 튀니지에서의 사막화 등의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행동의 시급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GCF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고 연설을 통해 말했다.

현재 각 국은 파리에서 체결될 신기후협정의 기초가 될 자국의 기여방안(INDC)을 UN에 제출하고 있다.

이제는 개도국들도 감축 공약을 설정하는데, 멕시코, 가봉, 이디오피아가 이미 자국의 INDC를 제출했다.

하지만 기후협상가들은 이러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후재정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약속은 신기후협정 마련을 위해 "결정적" 이라고 사무총장이 말했다.